

고유의 전통 되살린 신명나는 축제 되어야

글 장정룡 강릉대 교수

지방화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신명나는 일이 무엇인가. 도농통합의 갈등은 상존하고, 아직도 중앙과 지방의 낡은 이분적 사고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세계화와 지방화의 혼란은 어설픈 세방화로 문화의 셋방화를 초래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거나 중앙 쳐다보기식의 안일함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각기 나름의 처방을 갖고, 특색과 비교우위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그러한 하나의 과제로 전통축제의 생산적 산업화를 택하고 있음은 시의적절한 감이 있다.

전통축제의 생산적 산업화로 눈 돌리는 지방자치단체

전통축제의 순기능은 지역을 지역답게 만드는 데 있다. 그 중심에 주민들이 있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축제의 중심이기에 순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허장성세의 국제화, 세계적 축제의 지향은 자생적 전통축제를 위축시켜 전통의 작은 싹마저 훼손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참된 전통축제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이고, 지양해야 할 것이 무

엇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하겠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터무니없이 큰판을 벌인다고 해서, 내국인은 고사하고 세계인들이 무조건 찾아올 리도 없고, 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과도 관련한 전통축제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방향 모색은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여 지역 발전의 건인차로 만드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다행스럽게 ‘지역문화의 해’를 제정하여 요란하게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지방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지역문화의 해가 끝나자 백화제방(百花齊放)은 고사하고 도로(徒勞)문화의 해로 돌아오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정작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를 구두선(口頭禪)처럼 외치거나 바쁜 지방사람들을 중앙으로 불러모아서 한 판 벌이고 생색냄에 있지 않다. 지방문화의 자생적, 자발적, 자치적 독립문화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중앙에서 추진하는 많은 일들이 결국 지방의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시점이다.

따라서 의미 없는 일과성 잔치나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업적과시형,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모방축

제가 가져다주는 것은 지역문화의 참담한 황폐화와 지방재정의 궁핍함만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 이후 단체장과 주민인식이 변화하고, 실사구시적 행동과 다양한 노력으로 성공한 전통축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 하나가 국가지정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된 『강릉단오제』다. 필자가 강릉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 축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그냥 칭찬할 용기는 없다. 오히려 바로 곁에서 보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냉철하게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축제전문가들이 언급하는 수십만 명이 운집하는 천년 역사의 한국 대표축제 운운하는 말들을 수렴할 때, 모범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굳이 『강릉단오제』의 역사와 행사내용을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강릉단오제』가 성공한 축제로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먼저 축제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말하고자 한다. 사람은 축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고 할 정도로 축제 의미는 각별하다. 축제는 가장 인간다운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축제가 이벤트와 다른 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이벤트는 이른바 어떤 목적이나 의도하에 특별히 마련된 사건이나 행사다. 따라서 이것은 일과성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축제는 연속적이며 주기적, 반복적이라는 점이다.

축제의 본질(순환성, 주기성, 전통성) 잊지 말아야 한다

축제가 갖는 생산적인 의미가 한 해로 그 생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축제의 생명력은 강하게 지속된다. 그

러므로 축제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속에는 신을 경배하는 제의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인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망라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벤트 행사와 축제는 본질을 달리한다.

축제가 갖는 힘은 이러한 것이 매년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 해를 뜻하는 '歲'와 네 계절을 말하는 '時'가 결합된 '세시'는 천체적 개념이다. 이러한 천체적 개념과 계절 변화에 따른 인간의 생활상 주기적 대응방식이 세시풍속이다. 세시풍속은 다시 말해 '철바꿈' 또는 '철갈이' 민속이다. '철'은 '節'로서 계절이라는 마디며 절기다. 각기의 계절은 나름의 의미를 지니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이 갖는 상징성은 계절의 순환이나 바뀔뿐 아니라 생물의 성장과 쇠퇴, 발아와 수확 등과 무관하지 않다.

씨 뿌리고 수확하는 것으로 한 해를 삼았던 부족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는 한 해의 순차적 진행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이것으로 한 해의 단위를 설정했다. 축제는 바로 이러한 마디를 순행하고 극복하는 장치다. 봄철에 씨를 뿌리고 나서 파종 후 성장 의례적인 축제를 열었고,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르러 결실기에 들어서면 수확 후에 감사의 축제를 여는 주기성을 견지하였다. 봄에 기원하고 가을에 은혜를 갚는 춘기추보(春祈秋報)의 전통성은 우주의 섭리를 인식한 인간의 주기적 행위다. 따라서 씨 뿌리고 수확하는 농경 의례적 주기성이 세시의 본질이고 우리 축제가 기초로 삼는 생산력의 축이다.

축제가 무엇인가. 결국 신과 인간의 조우가 아닌가. 그것도 의미 있는 시기를 택해 기원하고 감사하는 본질이 축제다. 이것을 빼면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벤트는 특별히 마련되는 것이므로 주기성을 가질 수 없다. 별신제처럼 3년이나 5년, 10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주기

적이지 않게 별도로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축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축제를 주관하는 신성성이 퇴색되고 전승성이 쇠약해지고, 축제 본질이 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축제는 순환성, 주기성, 전통성을 갖는데, 그것은 아무 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을 고집하는 것도 계절의 순행과 변화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축제 날짜는 이미 정해진 좋은 날을 택일하거나 축제

를 주관하는 사람의 청결과 생기에 맞추어 행사를 거행한다. 날이 맞지 않으면 때를 기다리고, 날이 고정되어 있으면 생기에 맞는 깨끗한 사람들을 고른다. 이와 같이 명절이나 천시를 택하고 택일을 하고 생기를 맞추는 것은 천체운행 주기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축제의 본질은 때를 아는 것이고, 그때의 의미를 강조한 신과 인간의 신성화가 축제가 갖는 의미망이다.

모범사례 · 축제

잊혀진 전통 되살려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은 『강릉단오제』

금년 단오제는 내년도 강릉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민속제』를 준비하는 행사로 열렸다. 따라서 행사장의 재배치와 행사종목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 세시풍속인 단오 민속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단오빔을 입고, 여성들은 그네를 뛰고, 남성들은 씨름하고, 창포로 머리 감고 하던 일들이 세시풍속으로 계승되었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그러한 민속을 접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강릉단오제』는 신라 때 고승인 범일국사를 모시는 대관령국사성황제와 굿거리, 탈춤 이외에 수리치떡 만들기, 탈그리기, 창포머리감기, 천중부적 쓰기, 12간지 목판짜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남녀노소의 인기를 모았다는 점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천년 역사의 『강릉단오제』는 민간 주도의 행사로 정평이 나 있는데, 기존의 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긴밀한 유대, 강릉시·강릉문화원과의 협력관계가 정립되면서 바른 방향을 찾고 있다. 더욱이 한·중·일 국제단오민속학술대회를 강원도 민속학회에서 주최하여 단오가 이들 3국의 공통축제이며 영

원한 과제임을 부각시켰다.

내년은 『국제관광민속제』가 단오제 기간 동안 열리게 되어 강릉 단오 민속을 세계에 알릴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다. 그것은 천년 역사를 지닌 『강릉단오제』가 즈문 해(천년) 태양의 축제로 국제적 반열에 들어가는 한국 대표축제가 된다는 뜻이다. 음력 4월 15일 대관령에서 신목에 모신 국사성황신이 5월 6일 송신제를 끝으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갔다.

이렇게 강릉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 신을 맞이하고 함께 즐기며 다시 보내는 과정을 통해 삶의 경건함과 신화의 신성성이 유지된다. 신과 인간이 어울리고 신성과 세속이 하나되는 일원론적 세계관이 모든 갈등과 반목, 이원론적 가치를 하나로 통합하기에 축제는 신비로운 문화장치인 셈이다.

며칠 동안 남대천에는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수리치떡을 맛보고 천중부적을 받기 위해 모두가 긴 줄을 서야 했고, 귀에 익은 강릉 사투리를 들으며 창포로 머리 감고, 그네 뛰고, 씨름하고, 탈춤을 함께 추었으며, 어린이들의 풍물가락에 어깨를 들썩였다. 더구나 굿당에서 퍼지는 무녀의 사설에서 신명의 축제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더욱이 전야제 때 창포 등을 주민들이 직접 사서 들고 참가했다는 말을 듣고 일본 학자들은 놀라는 눈치다. 축제 천국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열린 『2002 강릉단오제』의 대관령국사성황제와 대관령 산신제

라는 일본의 상업적 마쓰리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강릉 단오 문화가 이처럼 성대한 모습을 지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오는 이름난 세시풍속이며 철갈이 의식이다. 수릿날 단오와 한가위 추석은 우리의 전통 명절로서 일찍이 해와 달의 신에게 경배하였던 한민족의 신성한 세계관이 축제문화로 개화된 것이다. 더욱이 강릉은 고대 예국의 땅으로 예국, 하슬라, 철국, 동원경, 임영 등의 옛 이름은 동쪽을 의미하거나 해를 뜻한다. 다시 말해 해 뜨는 동쪽의 고장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대관령국사성황신인 법암국사는 신라 때 승려로서 그 탄생신화는 신비하기 이를 데 없다. 학산 처녀가 해가 비친 우물의 물을 마시고 잉태했다는 것이니 태양계 신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신화의 원형이 태양에 있음을 우리는 단오와 연관짓지 않을 수 없다.

단오의 옛 이름이 수리다. 신라 때부터 '수리'라고 했으며, 고려 노래 <동동>에도 수릿날 아침에 먹는 약은 즙은 해를 살 수 있는 약으로 바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단오의 수리치떡은 떡이 아니고 약이다. 떡의 어원이 때주는 것, 즉 찌기다.

단오 때는 신과 인간이 함께 노는 것이고, 동시에 뭔가를 나누어주는 것이다. 신이 인간에게 복을 나눠주고, 인간은 이웃과 함께 두레의 정신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다. 세계인

이 태양 아래 하나로 모여 '수리수리'를 외치며 광명을 기리는 태양의 축제 『강릉단오제』는 그래서 의미가 깊다.

붉은 해가 정동쪽에서 떠올라 일찍이 제사를 지낸 신성한 상생의 터가 동해안이니, 수릿날과 강릉, 신화의 상관성은 광명상징이라는 영원한 주제를 담보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흥겹고 신바람 나는 최고의 축제인 수릿날 국풍 단오는 세계인을 향해 태양처럼 타오르고 있다. 수릿날 태양의 축제인 『강릉단오제』가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다.

그것은 축제가 갖는 기존 질서의 계승과 파괴, 새로움과 옛 것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선변(善變)의 논리로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자)하고 청신근고(淸新近古: 맑고 새로움은 옛것에 가까워야 한다)하며, 환구도신(換舊圖新: 옛것을 바꾸어 새로움을 도모하자)할 때 우리들에게 전통축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보하며, 그 문화적 달콤한 신명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